

광양시, 아동친화도 실태조사 나선다

정서적 건강·안전 등...2025년까지 2차 4개년 계획 반영 아동참여위·모니터링단 운영...아동예산서 발간도 추진

아동친화도시 광양시가 아동이 사회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친화도 실태조사는 물론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아동예산서 발간도 추진한다. 전남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광양시의 특화 프로젝트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시정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이 주체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아동참여위원회'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아동권리 공보전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 제언과 개

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아동 친화 예산서를 발간한다. 올해 세출 예산 중 아동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아동친화도 6개 영역(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으로 분류해 아동권리 관점에서 자원과 사업을 분석, 미진한 분야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한다.

아동친화도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아동·부모·아동 관계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 생활환경, 신체적·정서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동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급격히 변화하는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앞으로 4개년(2022~2025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광양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계획(2018~2021년)을 수립, 추진 중이다. 6개 영역 20개 사업에 새로 발굴한 (가칭)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42개 사업 등 총 62개 사업을 중점 전략 사업이다.

아동의 인권보장 문화 조성을 위해 2~3월 수요조사를 거쳐 4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보장과 폭력 예방에 관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67개소, 176회를 실시했다.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의 부

모를 대신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해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돌봄센터는 초등 돌봄교실을 포함해 74곳이고, 1954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 돌봄 아동은 맞벌이 아동 4633명의 42.2%이고, 초등 저학년(1~3학년) 기준 82%에 해당한다. 광양시는 돌봄센터를 올해와 내년까지 연 2곳씩 4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돌봄체계를 구축해 아이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난 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제110회 조합회의 임의회의가 열렸다. <광양경제청 제공>

올해 50개사 1조원 투자 유치

광양경제구역 조합회의...일자리 1500여개 창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최근 광양경제자유구역청 상황실에서 제 110회 조합회의 임의회의를 열고 9일 밝혔다.

이날 임의회의에서는 새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시급한 당면현안에 대하여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보면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 투자금액 1조원 투자기업 50개사를 유치, 15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세종산단 33만㎡를 광양항 배후 부지로 지정토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양항 신규 물동량 5만2000 TEU 창출과 LNG ISO탱크, 식품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을 유치 일자리 중심의 항만 배후단지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경제 해양관광단지 본격 개발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고 블루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리튬 등 부품소재 기업을 적극 유치, 이차전지 부품 소재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김길용 조합회의 의장은 "경제청 전 직원이 대중국 전략을 목표로 투자유치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종 사업 추진 시 신중히 검토할 것과 인근 광주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 지정됨에 따라 향후 투자유치 등에 있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조합회의 부의장은 "전국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대기업을 유치하고 역량이 있는 사업 시행자를 소속히 지정해 하동지구 개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무경 위원은 '블루투어 경도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경제청, 여수시, 전남도가 '투자 이면제'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시공사 등과 협의해 지역업체 및 지역 근로자가 고용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갑섭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올해는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불투명 여우려된다"며 "도정 역점시책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영하수처리장에 태양광발전 100kW 확충

연간 전기요금 2000만원 절감 전력 자급률 10%로 2배 상승

광양시는 광영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 친환경에너지시설인 태양광 발전설비 100kW를 확충·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광영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100kW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러, 지난해 환경부가 주관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3억여 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확충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이다.

발전설비가 확충되면 총 발전용량 200kW로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탄소중립률은 4.4%에서 8.8%로, 전력 자급률은 5%에서 10%로 2배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신재생에너지 이용활성화 등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 환경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가 광영하수처리장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 100kW 확충·추진한다. <광양시 제공>

여수광양항만공사, 벤처기업 키운다

우리항공·휴먼아이티월드·아이웍스 3개사와 업무협약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월드마린센터에서 벤처기업 3개사와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사와 협약을 맺은 벤처기업은 더드림스마트센터 입주사인 주식회사 우리항공, 휴먼아이티월드, ㈜아이웍스 등이다.

공사는 더드림스마트센터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신규 혁신기술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등 해운물류 분야 벤처육성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으로 이들 3개 기업은 더드림스마

트센터 통해 IR피칭, 사업제안서 제작 지원, 실증사업 지원 등 벤처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4개 항만공사 창업벤처 해커톤 대회에 당선된 휴먼아이티월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00만원의 사업지원 자금을 받는다.

최연철 공사 부사장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이번 협약이 해운물류 분야 유니콘 벤처육성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최신 시설을 갖춘 벤처기업 공유우



지난 5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최연철 부사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벤처기업 3개사 대표가 해운물류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피스인 더드림스마트센터 오픈을 시작으로 해운물류 분야 벤처기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제철 협력사 취업희망 교육생 다음달 6일까지 모집

포스코는 다음달 6일까지 광양제철소 협력사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교육생을 선발해 2개월 동안 직무 역량-인성 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지원, 협력사 채용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기계, 전기, 현장 크레인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며 34세 이하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포스코 중소기업컨소시엄 교육시스템(<http://educs.posco.co.kr>)

)에 접속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면 되며, 마감은 다음달 6일, 최종 합격자는 16일에 발표한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2개월간(3월 18일~5월 22일) 광양제철소 인근에 위치한 광양기술교육센터에서 기계-전기 실무, 현장 크레인 운전, 전기용접과 같은 직무교육과 함께 교양-인성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포스코는 교육생들에게 숙박·식비 등을 포함한 교육비 전액과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종료 후에는 취업 연계를 위한 협력사 면접 기회를 제공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